

## 道の 철학과 道の 언어학\*

고대 중국의 철학과 언어

정재현

(제주대학교)

### 1. 철학과 언어

언어와 철학의 관계가 20세기만큼 밀접한 시기는 없었다고 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인류학자나 언어학자들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면서 제기했던 언어에 의한 사고 결정설(1)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른바 ‘언어적 전회’(The Linguistic Turn)로 표현되는 20세기 영미 철학에서의 언어적 철학(linguistic philosophy)의 전개는 언어와 사고간의 연관성에 대한 20세기의 믿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철학과 언어와의 밀월관계 하에서 서구의 철학이론들은 서구 언어의 특징에서 기원한다는 주장도 있게 되었고,2) 최근 독일의 여성주의 언어학자들에 의한 언어혁신을 통한 페미니즘 운동(3)도 등장하게 된

---

【Keywords】 ancient Chinese philosophy, the concept of Dao, ethical normativity, Wholeness, dynamicity, non-reducibility

\* 예전에 나는 유가의 도덕적 언어사상을 다룬 적이 있다. 이 글은 도가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일반적인 동아시아 철학과, 그들의 언어관의 특색을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대표적으로는 Sapir-Whorf Hypothesis를 들 수 있다.

2) 예를 들어, 그리스어의 단칭표현과 일반표현의 구별이 플라톤의 형상이론 형성의 주요계기였고, 주어-술어의 표현에 대한 고려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속성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William P. Alston, *Philosophy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4), p.2.

3) 최근의 강연에서 독일 언어학자 슈미터(Peter Schmitter)박사는 명사의 性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독일언어가 성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언어의 혁신을 통해 여성차별을 극복하려는 독일의 페미니즘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명사의

다. 그러나 언어와 철학과의 관계에 대한 주장은 언어와 사고·행위를 원인과 결과의 일방적 관계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언어와 사고·행위사이의 구조적 상응관계를 주장하는 해석이 그런 상응관계를 부정하는 해석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 2. 고대 중국의 철학과 언어

고대 중국의 철학사상, 언어이론(theories of language), 언어형태(linguistic features) 사이에는 어떤 상응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미국의 저명한 중국철학자 한센(Chad Hansen)은 고전 중국어의 언어형태(중국문자의 표의문자적 특성, 중국언어의 문법적 어형변화의 부재, 중국어 단어의 물질명사적 형태), 고대 중국의 언어이론(언어는 행위를 규정하고, 차별과 구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일종의 사회적 관습이며, 유명론에 입각한 의미론을 가진다), 고대 중국의 철학사상(행동주의 유명론)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sup>4)</sup> 이러한 한센의 이론은 그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고대 중국인들이 세계의 물체를 물질적 실체(mass substance)로 보았다는, 그래서 서구와는 달리 자연적 개체(individuals)와 물질적 실체(mass substance)의 차이를 보지 못했다는 다소 과격한 존재론적 입장을 지지하게 하는 약점이 있다. 여기서의 한센의 이론에서 보이는 언어적 철학의 의의는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제시하는 것처럼 과격한 존재론의 부담감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의 철학, 언어이론, 언

---

성이 분명하지 않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사회가 독일사회보다 더 남녀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에, 언어와 사고·행위의 상호연관성은 보다 포괄적인 언어현상과 언어이론에 주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가 말미에 '성 특유의 대화구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이런 측면 때문이 아닐까? Peter Schmitter, *Geschlecht, soziale Gleichberechtigung und Sprache. Ziele und Reformvorschlage der feministischen Linguistik in der BRD* 성과 사회적 평등 그리고 언어: 독일 여성주의 언어학의 목표와 언어개혁방안, 제주대 독일학과 초청강연회, 2003.5.26.

4) Chad Hansen, *Language and Logic in Ancient China*,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1983) p.35.

어형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제기하는 언어와 사유와의 상응관계에 관한 이론은 道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고대 중국의 철학과 언어 연구는 한마디로 道의 철학이고, 道의 언어학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도와 언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약간의 저항을 느낄 수 있다. 고대 중국철학자들이 추구하는 道는 종종 언어로 접근불가능한 것처럼 말해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언어불신주의의 관념 하에서는 도의 이론과 언어이론은 서로 따로 다루어져야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언어관을 말하면서 도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야만 하는 측면들이 있다. 먼저, 道는 중국철학자들에게 궁극적 추구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고대 중국에서는 어떤 사상가나 학파의 사상과 그들의 언어를 동일시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학설은 그것이 언어로 표현된 까닭에 언어와 동일시되었다. 墨家가 철학이론의 타당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三表는 사실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의 기준이었다. 또 그들의 철학이론의 주요 개념인 義는 ‘올바름’이라는 윤리개념이기도 하지만, 언어적 표현의 ‘의미’라는 언어적 개념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맹자도 목자와 양주 학파의 이론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언어가 퍼지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sup>5)</sup> 물론 이런 것들이 고대 중국의 철학은 도의 철학이고, 또 그 언어학은 도의 언어학이라는 주장의 정당화는 될 수 없다. 궁극적 정당화는 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중국철학과 언어학의 다양한 측면들이 해명되는 곳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도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윤리 규범성, 전체성, 역동성, 비환원성. 아래에서는 도의 이런 특성들을 중심으로 동양의 철학사상, 언어이론, 언어형태들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 2.1. 도의 윤리 규범성

도는 기본적으로 길, 방법을 의미한다. 서구의 고대 자연철학자들이 추구한

5) Kwong-loi Shun, *Mencius and Early Chinese Thought*,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7) pp.32-35.

것이 자연의 근본적 존재원리였다면, 고대 중국철학자들이 추구한 것은 일종의 삶의 규범, 삶의 방식이었다. 중국철학자들에 있어서 인식은 어떤 사실에 대한 명제적 지식(knowing that)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나 방식이라는 실천적 지식 혹은 방법적 지식(knowing how)이다.<sup>6)</sup> 이런 실천적·방법적 인식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가의 경우처럼 인륜이라는 윤리적 법칙일 수도 있고, 혹은 도가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포괄적 의미의 우주의 근본적인 운행 법칙일 수도 있다.<sup>7)</sup>

존재의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서구의 철학적 배경에서 언어의 기본적인 역할은 세계에 관해 인식된 바나 사고내용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일이었다. 중국의 철학자들에게서도 언어의 역할을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sup>8)</sup> 그러나 그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재의 반영이나 모사가 아니라, 언어를 통한 규범의 실천이었다. 여기서의 규범이란 언어가 사회적 관습이고, 약속의 체계인 점에서 갖게되는 규범의 의미만이 아니고,<sup>9)</sup> 어떤 윤리적 실천 규범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동양의 언어 이론은 단순한 화용론<sup>10)</sup>을 넘어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 명제적 지식이 중요한 곳에서는 주장의 정당성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실천적 지식이 중요한 곳에서는 실천의 방법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7) 도가가 유가의 윤리적 규범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주의 자연법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자연법칙을 따르는 것도 넓은 의미의 윤리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윤리는 유가의 윤리에만 국한될 수 없다.

8) 명가, 후기묵가, 순자 등은 언어가 기본적으로 세계를 기술하거나, 자신의 인식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사용하는名은 주로 흑백, 소개 등과 같이 자연적 대상물들이었다. 물론 이들은 이런 名들의 유희적 사용을 통해 규범적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한다.

9) 이것은 언어의 사용규칙과 관련된 규범성을 말한다. 이러한 언어의 규범적 성격에 대해서는 Robert B. Brandom, *Making It Explici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4 참조

10) 모리스(Charles Morris)에 의한 기호론(semiotics)의 세 연구분야는 기호들 사이의 형식적인 관계를 다룬 구문론(syntax), 기호와 그것들이 표현하는 대상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의미론(semantics), 기호와 기호를 해석하는 화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화용론(pragmatics)이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윤리 규범성은 언어의 사용규칙을 윤리 규칙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언어를 차별과 구분의 체계라 할 때, 이러한 차별과 구분의 체계는 서구처럼 세계가 어떻게 생기는 지를 보여주는 일에 사용된다기 보다는,<sup>11)</sup> 그것이 어떤 윤리적 실천 행위를 일으키는지의 문맥에서 이용된다.<sup>12)</sup> 나아가 언어 혹은 그 언어로 표현된 철학적 이론에 대한 평가도 이런 윤리적 실천 행위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sup>13)</sup> 차별과 구분이 자연적인 것이냐, 아니면 인위적인 것이냐가 물어지기도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윤리적 실천행위를 위한 것이었지, 세계의 진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sup>14)</sup> 그러기에 맹자는 인륜도덕에 나타난 차별과 구분이 자연적이었고, 순자는 인위적이라 생각했었지만, 그들은 자연성과 인위성의 구분을 통해 세계의 모습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밝히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개념들이 갖는 특성을 통해 윤리적 실천이 더욱 용이하기를 원했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론들에 대한 후대의 평가도 어디까지나 윤리적 실천성에 있었다.

도의 윤리적 실천성을 제일 먼저 부각한 것은, 동양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처음 제기한 공자의 正名思想이었다. 공자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의 길 즉 道를 구하는 방법을 묻는 제자의 질문에 무엇보다도 正名을 해야한다고 했다. 正名이란 ‘이름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언어를 차분히 분석하고 음미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의 분석이나 수식은 윤리적·정치적 맥락에서는 오히려 덕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여기서 말하는 정명이란 언어와

- 
- 11) 차별과 구분은 세계의 속성인가? 혹은 우리 마음의 속성인가? 등등의 질문이 언어를 실제의 반영내지 기술로 보는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일 것이다.
  - 12) 맹자의 사단설은 인간의 마음이 가지는 어떤 자연적 경향성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에 윤리적 가치판단인 是非가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사단설은 四德이라는 유가의 윤리 규범의 실천을 위해 제기된 것이다.
  - 13)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유가의 대표적 이론인 맹자의 성선설도 이런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 14) 그레이엄(A. C. Graham)이 말했듯이 기원전 4세기 양주는 본능과 생명의 보존도 천명 즉 자연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자연과 인위, 도덕과 본능의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맹자와 장자의 철학은 바로 이 자연성과 인위성의 문제를 새로운 수준에서 이루어 낸 것이다. 자연을 외부의 것으로가 아니라 내부의 것으로 파악한 이들의 내재주의철학은 동아시아 철학의 전형을 이룬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들의 철학이 어디까지나 규범적이라는 것이다.

행위의 일치를 말한다. 주의할 것은 이 正名의 주장이 언어와 행위가 항상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치해야 한다는, 즉 당위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언어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혼란을 막자면 언어와 행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 행위, 사회적·정치적 안정간의 이런 일련의 연결과정을 공자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의 필요조건은 법률의 공정성이고, 법률의 공정성의 필요조건은 예악의 흥성함이고, 예악의 흥성함의 필요조건은 일의 성사이고, 일의 성사의 필요조건은 언어의 순화이며, 언어 순화의 필요조건은 단어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연쇄적 관계로 설명하였다.<sup>15)</sup> 한마디로 언어는 그것이 가지는 발화자의 의도와 믿음, 즉 욕구일반과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와 분리할 수 없으므로, 이상적 사회를 위해서 단어하나 하나의 사용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올바른 이름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세계를 정확하게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올바른 차별과 구분의 세계에 대한 호감을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세계를 구현하려하기 위한 것이다.<sup>16)</sup>

도가의 도는 인간의 세속적 가치기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성을 띠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의 규범보다는 존재자연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과연 이 도나 혹은 자연이 서구의 존재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많다. 노자나 장자의 관심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도도 인간의 행위를 배제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묻어 나오는 어떤 자발적(spontaneous) 양태를 가리킨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도가도 유가와 마찬가지로 윤리 규범적 성격을 지닌 도를 추구하는 것이지, 어떤 실재의 존재를 추구하는 것

15) 『논어』, 「자로」.

16) 맹자도 이점에서 공자와 다르지 않다. 은의 폭군 주는 결코 왕이 아니라 필부일 뿐이고, 따라서 주를 죽인 것은 임금을 죽인 弑가 아니라 한 필부를 죽인 殺이다. 언어에는 이처럼 그 사람의 뜻이 드러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그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그의 의도가 들어있고, 이것은 벌써 행위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자의 언어불신주의는 실재를 표현하는 언어의 한계보다는 오히려 행위를 인도하는 것으로서의 언어의 한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의 도를 사회 정치적 질서 대신에 ‘궁극적인 불변의 일자’(the ultimate unchanging one)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노자가 도를 “욕심 내지 않는, 無名의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sup>17)</sup>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런 도의 윤리 규범성 때문에 도가도 유가와 마찬가지로 언어는 실재를 기술하는데 그 역할이 있지 않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욕망이나 차별적 편견을 수반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도가가 언어에 좀 부정적인 이유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와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sup>18)</sup> 적어도 추구하는 실재가 윤리 규범적인 것이라거나, 그 실재와 관계가 있는 언어가 윤리 규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유가나 도가나 차이가 없다.

도덕적 철학사상과 언어의 이런 규범적 역할과 함께 거론하는 것이 중국어의 모습이다. 특별히 고전 중국어는 繫辭가 없다. 서구의 언어가 계사를 통해 개별실체와 그 개별실체의 존재나 본질을 부여하는 방식을 갖는데 반해, 고전 중국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계사가 아예 없고, 단지 有와 無라는 말을 통해 그것이 ‘사용 가능하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주위에 있다든지, 없다든지’를 말할 뿐이다. 유와 무를 직역하면 세계가 그 사물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이다. 심지어 서구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현대 중국어에서도 계사로 채택된 말은 존재보다는 사용가능성, 실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이것’이란 의미의 “是”이다.<sup>19)</sup>

17) 『도덕경』, 37장.

18) 리우(JeeLoo Liu)에 따르면, 서구는 진리를 명제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즉 언어와 실재의 대응관계에서 찾고, 중국은 진리를 우리의 사고나 행위와 실재의 대응관계에서 찾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녀가 노자를 형이상학적 실재론(metaphysical realism), 장자를 내재적 실재론(internal realism)이라 주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는 있지만, 일관된 해석은 아닌 것 같다. JeeLoo Liu, “The Daoist Conception of Truth: Laozi’s Metaphysical Realism vs. Zhuangzi’s Internal Realism” in <http://www.geneseo.edu/~Liu>.

19) David Hall and Roger T. Ames, Chinese Philosophy,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 2.2. 도의 전체성

앞서 도가 하나의 수단,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 방법만을 가리킨다기 보다는 그런 수단, 방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목적 그 자체도 의미한다. 이렇게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지 않는 것은 도가 전체성(wholeness)을 지닌 개념이기 때문이다.<sup>20)</sup> 도의 이런 전체성의 측면 하에서 수단과 목적은 물론, 부분과 전체, 과거, 현재, 미래의 유기적 관계가 강조된다.

서구 철학의 특색은 흔히 개체주의, 원자주의라고 한다면, 동아시아철학의 특색은 전체주의, 혹은 유기체주의이다. 물론 서구와 동양에 대한 이런 이분법이 아주 거친 것은 사실이다. 서구에서 개별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고, 그 전에는 서구도 다분히 전체론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신유학 철학에서 나타나는 주체의 강조를 자유주의, 개인주의 전통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sup>21)</sup> 그러나 동아시아의 주체주의는 서구의 개인주의, 원자론의 철학과는 다른 측면을 지닌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道나 理와 같은 규범적 원리의 주체적 체득을 말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그 어떤 외부의 영향까지도 부담스러워하는 즉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규범을 개체를 억압하는 기제로 본 서구의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체와 분리될 수 있는 개체, 개인의 강조는, 동양에서는 낯선 현상이다.<sup>22)</sup> 동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萬物一體나 天人合一에서 보이는 범신론적 세계관은 불교나 도가의 상관주의와 함께 공동체에 속한 개체의 개념을 지지한다.<sup>23)</sup>

---

*Philosophy*, ed. by Edward Craig, New York: Routledge, 1998, p.316.

20) Tu Weiming, *Confucian Humanism as a Spiritual Resource for Global Ethics*, 다산철학기념강좌논문, 2001.

21) Wm. Theodore de Bary, 『중국의 ‘자유’ 전통』, 표정훈 옮김, 서울: 이산, 1998 참조

22) 푸 웨이밍은 유교를 타 기축사상과는 달리 원초적 유대, 종족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앞의 논문 참조

23) 공동체와 개체, 형식과 내용, 몸과 마음의 비분리성은 동아시아철학의 주류적 흐름



도는 전체론적 개념이다. 부분은 전체의 맥락을 알아야 파악된다고 보는 전체론의 관점이다. 이러한 도의 전체성은 도가의 사상가들에게서 잘 보여진다. 노자와 장자는 도가 하나이고, 혼돈의 것이라고 하였고, ‘인간의 분별에 의해서 비로소 제도와 구분이 있게 된다’(始制有名)<sup>24)</sup>고 하였다. 전자가 바로 자연이고, 후자가 인위이다. 따라서 도가의 자연주의는 하나 즉, 전체성을 지향한다.<sup>25)</sup> 장자에 의하면 우리는 합리적, 언어적 활동으로는 세계에 관해 객관적 기술을 할 수 없다. 언어의 차별과 구분의 성격을 장자는 是와 非라는 말로 표시한다. 是와 非는 각각 ‘옳음’과 ‘그름’의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시사이다. 옳은 것은 자기에게 가까운 것(是)이고, 그른 것은 자기에게 먼 것(非)이라고 하게 된다. 장자이전에는 언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으로 언어가 비록 이런 지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객관적 인식의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언어의 이런 지시적 성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식능력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에 관한 어떠한 異見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26)</sup> 그런데, 장자에게는 언어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식능력도 지시적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합리적인 갈등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합리적, 언어적 차원에서는 장자의 도는 시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각 상황 속에서 각각의 인식과 언어는 나름으로 다 맞는다. 상황을 벗어나 옳은 입장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차별적인 침묵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지식이라고 보았다. 무차별적인 도의 세계와 차별적인 언어의 세계의 긴장관계를 읽을 수 있다.

도가가 비난한 유가의 도도 궁극적인 도에서는 전체성을 갖고있다고 보여

이다.

24) 『도덕경』 32장.

25) 물론 도가의 자연주의를 전체주의보다 상대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상대주의의 언명은 전체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전체적성의 측면도 지닌다.

26) 후기목가가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진다.<sup>27)</sup> 공자에게서 중요한 미덕은 대체로 仁, 義, 勇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仁이 장자가 말한 도의 무차별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성을 갖지 않는다. 仁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격을 지닌다. 仁은 그래서 언어로 묘사하기가 힘든 최상의 덕이다. 비교적 언어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한 것이 義의 미덕이다. 義는 흔히들 정의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도덕원칙이라기 보다는 상황에서의 적절성이다. 禮를 禮로 만드는 것은 仁이기도 하지만, 또 바로 이런 상황의 적절성인 義이다. 禮를 강조한 유가에서, 義의 강조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義는 또한 언어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그 언어가 그 상황에서 불러 일으키는 효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상황의 적절성을 가리키는 義와 언어의 의미를 가리키는 義는 최상의 덕인 仁이나 道가 전체성을 가진 개념이라는 사실에서 이해 가능하다. 비교적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맹자가 양주와 묵가의 계산주의를 반대했던 것은 그들의 계산주의가 너무 단편적이고, 일면적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맹자가 인의가 참된 이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전체로 보면, 혹은 장기적 시간을 두고 보면 이익의 추구가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의가 장기적 이익을 보장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sup>28)</sup> 공자가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고 있다고 할 때나, 순자에 의해 표현된 덕의 단일성<sup>29)</sup> 혹은 統類<sup>30)</sup>의 생각은 도란 一統의 원리 즉 전체적이며 통일적인 원리라는 것이다. 특히 순자의 통류에서 도는 하나의 전체적 원리

27) 도가와 유가의 차이점은 도가가 궁극적인 도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유가는 그 하위의 보편적 도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을 풍우란은 그의 중국철학소사에서 지적하는데, 그는 특히 「역전」을 유가의 형이상학체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그 곳에서 보이는 도의 개념을 도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말하였다. 풍우란, 『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1984, pp.225-6 참조.

28) 『맹자』, 「양혜왕상」 참조.

29) 덕의 단일성(the unity of virtue)이란 유가의 德은 결국 하나라는 것이다. 인, 의, 예 등의 미덕들은 도라는 하나의 덕의 다른 측면이다. 쿠아는 이것을 '완성이론'(the completion thesis)라고 부른다. A. S. Cua, "The Concept of Li", in *Understanding the Chinese Mind*, ed. by Robert E. Allinson, Oxford Univ. Press, 1989 참조.

30) 여러 類를 관통하는 근본원리.

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무엇보다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다. 성리학에서는 이런 유기적인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理一分殊(원리는 하나인데, 그 표현은 다양하다) 라고 표현했다. 공동체와 개체, 육체와 개인의 관계는 불가분리이다. 도는 개인이 완비해야 할 덕인 동시에 이상적 사회상태를 아울러 가리킨다. 장자가 육체가 없어진 후의 영혼의 존재에 회의를 던진 것도 이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도는 어떤 개별적 사건들의 원리들이 동시에 또 그런 개별적 원리들을 총체적으로 작동시키는 전체적 원리이다. 언어의 규범적 측면에서 보였던 언어와 도와의 조화는 도를 전체적이며 통일적 원리로 보았을 때 상당부분 깨진다. 차별과 구분의 체계로서의 언어는 이런 전체적이며 통일적인 원리를 표현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전체론 철학 하에서의 언어학은 언어의 의미를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사물하나 사태하나가 대응하는 원자론적 의미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어는 문장을 떠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고, 문장은 어떤 이론을 떠나면 무의미해진다. 단어, 문장, 이론의 구별도 이런 전체론의 체계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고전 문어체 중국어에서 단어의 묶음과 문장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라든지, 문장 내에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어형적 장치가 부재한다든지, 언어의 의미가 단어의 순서나 문맥에 의한 다든지 하는 점들이 보이는 것은 바로 고대 중국의 언어이론이나 철학사상이 가진 전체론적 철학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 2.3. 도의 역동성

도는 역동적이다. 유가의 대표적 형이상학을 담고있는 『역전』에는 특별히 生生之謂易(끊임없이 낳는 것을 바뀜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易은 바로 道를 가리킨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도라는 것은 유가 뿐 아니라 도가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도는 현상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말해지지만, 그것은 언제나 현상과 함께 그려진다. 노자는 반대되는 짝을 통해 이런 변화의 과정을 말했고, 장자는 끊임없는 다른 사물로의 변화를 말하였다. 도가 언어나 우리의 인식으로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그것이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역동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塞翁之馬의 예에서와 같이 어떤 사건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함부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라고 판단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장자의 언어사용은 이러한 流轉 變化하는 실재의 개념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는 언어는 항상 주변의 변화에 따라야 하고, 고정되지 않아야 하는, 유연한 차별과 구분을 해야한다고 보았다. 차별과 구분의 근거는 일시적이고 편의적인 것이다. 그는 이런 자기의 언어를 寓言, 重言, 卮言<sup>31)</sup>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주의할 점은 앞서 말했듯이 도와 언어가 실천규범적이라는 사실이다. 도의 역동성과 언어의 유연성을 단순히 움직이는 물체를 묘사하는 맥락에서 이해하지 말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실천 규범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학이론을 역동성으로 이해해야한다는 측면은 유가 예컨대 孟子의 性善說에서 잘 알 수 있다. 맹자는 본성이 선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선하다라고는, 혹은 선했을 것 같다고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맹자의 이 말에 잠시 당혹감을 느낀다. 맹자는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에 그 사람들도 원래는 선했는데,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나빠졌다고 한다. 그런데, 원래는 선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사실 성선설이 경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검증의 원리와 반증의 원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그렇다고 맹자의 性善說을 경험에 의해 반박될 수 있는 경험적 주장이 아니라, 선험적 혹은 초월적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초월적 人性의 善性은 보장해 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런 초월적 인성의 善性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맹자의 실천적

31) 『장자』, 「寓言」. 그레이엄에 의하면 寓言이란 잠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빌려다 말하는 것이고, 重言이란 격언과 같이 권위에 의존해서 말하는 것이고, 卮言은 가득 차면 기울어졌다 다시 똑바로 서는 卮라는 그릇에서 온 것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의미와 관점을 바꾸는 말이다. A. C. Graham, *Chuang-Tzu: The Inner Chapters*, pp.25-6.

의도에 맞추어 좀더 경험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해명해야 하는데, 이것은 맹자의 性을 정태적, 과제적(task) 개념이 아니라 유기적, 동태적, 성취적(achievement) 개념으로 보아야 가능하다.<sup>32)</sup> 철학이론을 도의 역동성 속에서 평가하자면, 인식대상의 객관성이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면 이해가 가능한 성질’을 의미하며, ‘아무런 노력 없이도, 즉각적으로 누구에게나 이해가 가능한 성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고전 중국어에 있어서 단어와 문장의 구별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문장이 서구의 경우처럼 주어와 술어의 형태로 잘 분석되지 않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문장의 주어가 대체로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고, 문장 내에서의 단어의 역할 즉 품사가 어형적으로 표시되지 않기에, 어떤 때는 명사로도 쓰이는 한 글자가 주어가 생략된 동사나 형용사 즉 술어적 역할을 하면서 한 문장을 이룰 경우가 종종 있다. 주어가 분명하지 않기에, 문맥에서 주어가 명확하게 찾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주어의 첨가를 통한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 실제로 장자는 의도적으로 중국어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 세계와 자아의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 2.4. 도의 비환원성(예술성)

근대 이전의 서구는 역시 개별주의보다는 전체론이었다. 이러한 서구의 전체론과 동아시아의 전체론의 차이는 후자는 전자와는 달리 전체가 어떤 분명한 법칙에 의해 규정이 되지 않는다는이다. 즉 도는 어떤 이해 가능한 초월적이며 추상적인 법칙으로보다는 어떤 공동체의 관습에 암묵적으로 내재해있는 원리거나 혹은 좀 시적인 표현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운명’<sup>33)</sup>과 같은 것

32) 정재현, 「原始儒家에 있어서의 自然과 人間: 孟子와 荀子를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연구회 학회지 『프랑스문화읽기』 제2집,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서울: 어문학사, 1997.12).

33) 장자의 도의 개념을 상기해보라.

으로 말해졌다. 이것은 唐이나 宋代에 들어와서 道보다는 理라는 개념이 더 상용되는 시기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理는 현상을 현상으로 있게 하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원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이상학적 원리가 결코 분석되거나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파악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理는 그 현상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더 간단한 개념이나 원리가 아니다. 그 현상의 리를 파악한다는 것도 다른 것과의 연관 속에서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의 발생이 필연적임을 인지하는 것이다.<sup>34)</sup> 이점에서 고대 중국 사상의 특징을 환원론의 결여로 본 슈윙츠의 지적은 매우 적절한 것 같다.

왜 서구의 형상과 같은 것에서 기준을 찾지 않았을까? 왜 그런 것에서 보편성을 찾을 수 없었을까? 이런 질문에 에임스와 홀(David L. Hall and Roger T. Ames)은 중국은 서구의 이성적 질서와는 달리 미적 질서에 속해있기 때문이고, 이런 미적 질서가 중국에서 발전한 것은 서구와 달리 우주 발생론이나 우주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서양은 우주 발생론이나 우주론이 있어서, 어떤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것에 의해 현상의 조화를 설명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중국은 그런 거대한 체계에 비해 비교적 작은 사회적 연관 관계 안에서 공공체적 조화를 성취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sup>35)</sup> 중국에 있어서의 우주는 창조자나 궁극적 원인이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생성적인 것이고,<sup>36)</sup> 세계의 변화는 직선적인 것이 아니고, 순환적인 것이었다는 것이다.

도의 비환원성과 관련이 있는 중국어의 특징은 그 글자의 상형성내지 표의 문자성이다. 한자는 서구의 문자처럼 단순히 우리의 발음을 나타내는 음성기호가 아니라, 사물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림과 같은 것이거나, 혹은 우리의 뜻

34) 김영식은 理가 마치 定義와 같다고 했다. 김영식, 「이황의 이기관과 신유학 전통상에서의 그 위치」, 『퇴계학보』 81집, 1994, pp.82-7.

35) David L. Hall and Roger T. Ames, *Anticipating China*,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95 참조

36) 모트(Frederick W. Mote)도 우주발생론과 우주론에 영향을 받은 서구의 외재적 원인에 의한 정당화의 설명방식을 지적한다. Frederick W. Mot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China*, New York: Alfred A. Knopf, 1971, pp.17-28.

을 발음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문자로 여겨졌다. 중국의 전통에서 글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었고, 구체적 형상에서 보편적인 것을 그려내는 수단이었다.

### 3. 결론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고대 중국의 철학사상은 고대 중국의 언어이론과 고전 중국어의 언어형태에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일정한 영향을 주면서, 또 일정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왔다. 중국철학자들이 추구한 도란 규범적, 전체적, 역동적, 비환원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상응하는 중국의 언어학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론이나 형태론에서 규범성, 전체성, 역동성, 비환원성의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도의 특성을 가진 언어이론, 철학사상과 상응하는 것으로 끌어들이고 고전 중국어의 구조적 특성은 주·술관계의 문장 구조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고, 문장 내에서의 한 단어의 역할 즉, 품사의 구별이 없고, 의미를 확정하는 데 글자의 순서나 문맥에 의존하고, 단어와 문장 간의 구별이 불분명하며, 문자의 상형성 내지 표의성이 있으며, 繫辭가 부재한다는 것 등이다.

도의 개념적 특성을 배경으로한 우리의 언어와 철학이론에서 철학과 언어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언어는 사고와 분리되지 않고, 사고는 또 행위와 떨어지지 않으며, 개인적 행위는 사회적 행위나 정치적 행위가 된다. 언어, 욕구, 사고, 행위 등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발화행위는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상태를 표현했다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산출해냈다는 뜻이다. 어떤 언어를 이해했다는 것은 그 언어로 표현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가치 중립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이나 사건을 긍정했다는 것이다. 이 이론들에서는 언어 규칙을 따르는 것과 도덕 규칙을 따르는 것이 동일시되기에, 언어의 바른 사용과 도덕적 삶이 구분되지 않는다. 정명의 사상은 유가만이 아니라 도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정명의 사상에서는 언어규칙을 잘 따르면서 도덕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언어규칙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발화행위만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도덕행위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도의 개념에 근거한 동아시아의 언어이론이다. 문제는 언어에 매겨진 이런 과도한 짐이 우리의 삶을 비교적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언어에 대한 객관적 탐구를 저어하거나 하나의 억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언어가 지나치게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언어 고유의 내재적 법칙을 표현해내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sup>37)</sup> 이점에서 비교적 언어적 표현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명가, 후기목가, 순자의 언어이론이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들의 철학사상이나 언어사상이 반사회성이라는 평가를 받게되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주류의 도덕적 언어사상과는 달리 언어의 자율성을 제시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음을 반증해준다.

## 인용문헌

『논어』

『맹자』

『도덕경』

『역주 장자 1』. 안병주, 전호근 공역, 전통문화연구회, 2002.

김영식. 「이황의 이기관과 신유학 전통상에서의 그 위치」, 『퇴계학보』 81집, 1994.

정재현. 「原始儒家에 있어서의 自然과 人間: 孟子와 荀子를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연구회 학회지 『프랑스문화읽기』 제2집,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서울: 어문학사, 1997.12.

풍우란. 『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1984.

Alston, William. P.. *Philosophy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4.

37) 이것은 동양의 예술이 지나치게 도덕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추구되어 자율적 예술이론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가진 것과 유사한 상황일 것이다.



- Brandom, Robert B.. *Making It Explici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4.
- Cua, A. S.. "The Concept of Li", in *Understanding the Chinese Mind*, ed. by Robert E. Allinson, Oxford Univ. Press, 1989.
- de Bary, Wm. Theodore. 『중국의 '자유' 전통』, 표정훈 옮김, 서울: 이산, 1998.
- Graham, A. C.. *Chuang-Tzu: The Inner Chapters*.
- Hall, David L. and Ames, Roger T.. *Anticipating China*,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95.
- \_\_\_\_\_. "Chinese Philosophy,"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by Edward Craig, New York: Routledge, 1998.
- Hansen, Chad. *Language and Logic in Ancient China*,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1983.
- \_\_\_\_\_. "Language in the Heart-mind," in *Understanding The Chinese Mind*, ed. by Robert E. Allinson, Oxford Univ. Press, 1989.
- Liu, JeeLoo. "The Daoist Conception of Truth: Laozi's Metaphysical Realism vs. Zhuangzi's Internal Realism" in <http://www.geneseo.edu/~Liu>.
- Mote, Frederick W.. *Intellectual Foundations of China*, New York: Alfred A. Knopf, 1971.
- Schmitter, Peter. *Geschlecht, soziale Gleichberechtigung und Sprache. Ziele und Reformvorschlage der feministischen Linguistik in der BRD* 성과 사회적 평등 그리고 언어: 독일 여성주의 언어학의 목표와 언어개혁방안, 제주대 독일학과 초청강연회, 2003.5.26.
- Shun, Kwong-loi. *Mencius and Early Chinese Thought*,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7.
- Tu, Weiming, *Confucian Humanism as a Spiritual Resource for Global Ethics*, 다산철학기념강좌논문, 2001.

[Abstract]

**The Philosophy and Linguistics of Dao :  
the Ancient Chinese Philosophy and Language**

Chae-Hyun Chung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ancient Chinese philosophy and linguistics through the concept of the Dao. Ancient Chinese thought had developed together with ancient Chinese theories of language and the linguistic features of Classical Chinese. The concept of the Dao served as an intermediary among them. The Dao which ancient Chinese philosophers sought for has several characteristics: ethical normativity, wholeness, dynamicity, non-reducibility. Linguistic studies also revealed them. The following linguistic features of Classical Chinese are the cause and/or the effect of such Dao-based philosophy and linguistics: No explicit subject-predicate sentential structure, no parts of speech, heavy reliance on the word order and context for meaning determination, no explicit distinction between compound words and a sentence, the pictographic or the ideographic features of Chinese graphs, and non-existence of a copula.